

고흥군-전남도-육군교육사령부 드론 업무협약 체결

차세대 드론 산업 협력체계 구축 드론 입주기업을 유치 활성화 기여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난 2일 대전 육군 교육사령부에서 전남도, 육군 교육사령부와 차세대 드론산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는 전남도 윤병태 정무부지사, 송귀근 고흥군수, 박상근 육군교육사령관 등이 참석해 업무협약서 교환과 기념품 전달의 시간을 가졌다.

고흥군은 국내 최대 규모의 드론 시범공역(직경 22km, 고도 450m, 면적 380km²)을 보유하고 있으며, 항공센터,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우주항공첨단소재센터 등 다양한 항공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어 드론산업의 최적지로 알려져 있다.

이번 협약 체결은 고흥군의 드론 산업 인프라 여건을 바탕으로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 드론산업 관련 분야에 관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고흥 항공센터 인근에 건립중인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의, 드론과 관련한 드론봇 챌린지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협력해 개최하는 것이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군의 드론 수요가 광활하기 때문에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 드론기업의 큰 수요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을 유치와 고흥군 드론산업 발전에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문석 기자



고흥군은 지난 2일 대전 육군 교육사령부에서 전남도, 육군 교육사령부와 차세대 드론산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는 전남도 윤병태 정무부지사, 송귀근 고흥군수, 박상근 육군교육사령관 등이 참석해 업무협약서 교환과 기념품 전달의 시간을 가졌다. /고흥군 제공

해남군, 어린이집 지원 확대

해남군은 어린이집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1억2천5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어린이집의 식중독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위생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21~50인 소규모 어린이집 14개소에 보존식 보관 냉동고와 보존용기 구입비를 개소당 70만원 지원한다.

또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월 10만원 지원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담임교사) 처우개선비도 법인·법인단체 어린이집에도 월 5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더불어 올해 4월부터 전체 23개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중 3년 이상 동일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종사자에게 장기 재직수당도 지급한다. 수당은 근무연수(3~5년 이상)에 따라 차등 지급해 보육교직원의 사기를 진작할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육교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수 기자

보성, 오봉산 해평호수 십리길 감국 식재

눈·머리 맑게 해주는 감국 1만본 식재

보성군은 해평호수 십리길(4km)에 공직자들이 감국 1만본 식재에 나섰다

공직자가 함께하는 감국 식재는 1일과 2일 양일간 진행됐다. 보성군은 대대적인 식목일 행사를 취소하는 대신 부서별로 시간대를 나누어 감국 식재를 하는 방식으로 코로나 19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산림을 가꾸고, 공직자들이 내손으로 지역의 명소를 만든다는 의미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특량면 오봉산 아래에 있는 해평호수는 응추폭포와 개흥사(터) 계곡에서 흘러내려와 형성됐으며, 호수를 둘러 4km가량의 산책로가 조성돼 있다.

해평호수 십리길은 맑고 깨끗한 호수 주변으로 산뽕나무, 사스레피나무, 삼나무, 편백, 대나무, 산죽, 단풍나무, 히어리, 생강나무 등 다양

한 수종과 곳곳에 야생화들이 피어 있어 어린이, 노약자 등 누구나 편하게 걸으면서 마음을 치유하는 숲길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번에 식재한 감국은 눈과 머리를 시원하게 하고 가슴속에 열을 내려줘 폐렴, 기관지염, 두통, 어깨 결림, 고혈압 등에 효과가 있는 야생화로 산책을 즐기지만 해도 건강이 좋아질 수 있도록 고려해 선정됐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해평호수 십리길이 부분 완공되면서 오는 4월 말 완공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면서 “이번 감국 식재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준 공직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보성군 공직자들이 주민과 지역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레 심은 감국이 많은 분들에게 오래도록 사랑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욱 기자

완도군, 2023년 전라남도 체육대회 유치 확정

2024년 전남 생활체육 대축전·장애인 체육대회도 개최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지난달 31일 열린 전라남도 체육회 제33회 이사회에서 2023년 제6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군은 지난 2019년도에 전라남도 체육대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 지난 달 현장 실사를 거쳐 5만 군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해온 결과 전남

체육 유치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특히 신우철 군수는 현장 실사단이 군에 방문했을 때, 완도군이 전남체전 개최지가 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적극 설명했다.

완도군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전라남도 체육대회는 2023년 4월 완도군 일원에서 4일간 개최되며, 대회

개최 이듬해인 2024년에는 전라남도 생활체육 대축전 및 전남도 장애인 체육대회도 개최된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 간 대회 개최로 참가 선수 및 응원단 등이 약 3만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완도군은 지난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군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전남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완도의 위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린다는 방침이다.

/백나영 기자

장흥군 "살아본게 장흥이 최고여라" 수기 공모

내달 10일까지 접수, 90명에게 시상금 총 1천만 원 지급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오는 5월 10일까지 장흥살이 행복 이야기 '살아본게 장흥이 최고여라'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종 대상 1명에게 100만 원(장흥사랑상품권) 등 90명에게 총 1천만 원의 시상금이 지급되며, 향후 수기

집 발간을 통해 장흥 정착의 길라잡이로 활용할 계획이다.

장흥군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세대당 한 작품을 제출할 수 있다. 주제는 장흥에 살면서 겪은 행복한 이야기로 결혼, 다자녀, 다세대 가정의 진솔하고 다양한 삶

의 이야기, 청년 성공 창업, 일자리, 귀농·귀촌 정착 사례로서 세부 사항 및 신청 양식 등은 장흥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검색 및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장흥군은 지난해 함께 출생률 1.77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인구 4만 회복 운동을 위한 '3대 분야 50개 시책'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김정근 기자

진도 조도면, 정화 활동 실시

진도군 조도면에서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근 해양쓰레기 수거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조도면 공직자 15명은 대마도 마을 주민 30여 명과 함께 조도면 대마도를 주변 해안선을 따라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해 20여톤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다.

진도군 조도면 대마도는 지난 2018년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돼 현재 조성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대마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도면 관계자는 “지속적인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을 실시해 깨끗한 해양 환경과 건강한 바다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라며 “섬 주민은 살고 싶고 관광객들은 가고 싶은 조도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사단법인 전국기자협회를 창립한 김경 사단법인 전국기자협회장입니다.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언론환경은 우리 기자들에게 멀티미디어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보혁명의 선도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채널 다매체시대가 열리면서 다양한 정보가 전달되고 정보선택의 기회가 크게 확대된 반면 기존매체와 뉴미디어사이에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생존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시대의 언론과 언론인에게도 변화하지 않는 금과옥조(金科玉條)는 정론직필을 통한 국민의 알권리 제공입니다. 기자는 진실과 정의를 통해 시대를 깨우치고 이끌어가는데 신명을 바쳐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달라지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전국기자협회를 새롭게 창립한 이유도 바로 이런 구심체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사단법인 전기협'은 새로운 미디어시대에 부합한 언론상을 확립하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우리 기자들이 공정성, 공익성, 객관성, 정확성, 책임성을 가지고 그 사명과 소임을 수행하면서 사회의 공기(公器)로서 균형을 잡고 사회를 세상을 이끌어가는 언론인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선배 언론인들이 불의나 부당한 권력에 분연히 맞서 언론의 자유를 지켜오셨듯이 우리들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바르고 진실된 사회,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아봅시다. 감사합니다.

